

호스피스 견학보고

홍콩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소속 16명의 회원들은 1994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홍콩에 있는 여러 호스피스를 견학하고 돌아왔다.

브래드 버리 호스피스(Bradbury hospice)

이 호스피스 기관은 정부에서 땅을 제공했고 Bradbury Trust Group에서 건물을 지었으며 Hong Kong Jockey Club에서 3년동안의 호스피스 운영비로 \$31 million을 후원받아 1992년 11월에 설립되었다.

독립된 호스피스로 호스피스 의사의 책임하에 Inpatient Care Hospice, Home Care Hospice, Day care Center 가 있고 병상수는 총 27병상으로 8인용 1개, 5인용 3개, 2인용 2개를 두었으며 특별히 family room이 있어 간호에 지친 가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었다.

이곳은 원목실, 사회사업가, 직업치료가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때는 환자 입원시 환자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전화

번호를 알아두었다가 환자의 허락이 있을시 그분들께 연락해주고, 사회사업가가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part time으로 하였으며 작업치료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Day Care Center시 지도를 담당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그리 폭넓지 않았고 봉사자들의 병실방문은 없고 환자들의 입·퇴원 및 가정간호사의 Home Care시 차량 봉사를 해 준다거나 환자들과 함께 꽃꽂이 하기, 병원의 행사나 환자들의 생일날 축하해 주기 등이었다. 이 기관의 운영은 처음 개원시 Hong Kong Jockey Club에서 약속했던 3년간의 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의 지원을 조금은 받는다고 한다.

헤븐 홉 호스피스(Haven of Hope Hospice)

이 병원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1987년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다가 1990년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시작하였다. 총 249병상중 호스피스 병상수는 23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Home Care Program도 있다. 이곳 역시 가족들을 위한 a family room을 갖추고 있고 사회사업가, 작업치료사, 심리학자는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호스피스 병상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소개를 받은 경우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중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들이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호스피스 교육을 별도로 받아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목실 봉사자들처럼 도서

대출, 홍차만들기, 월1회씩 환자 생일파티 열어주기 등 교회 단체나 학교 단체에서 나와 활동 한다고 한다.



남랑 호스피스

1967년 Anti Cancer Society로 시작하여 홍콩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암병동이다. 호스피스 활동은 1968년에 20병상을 시작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전체 환자 180병상 중 60병상을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고 Home Care Program은 없다. 이 병동에는 호스피스 의사 1명, 특별교육을 받은 간호사 13명, 작업치료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히 작업치료사는 환자들과 게임을 해 주고 오페라, 박물관, 서커스, 공원 등에 함께 나가기도 하고 도서 대여 및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고 오랜 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 밖의 생활을

알려주기 위해 새로 지은 건물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여주기도 한다.

이곳은 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위한 월 1회 암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들의 증상이 조절되면 가능한 한 외래를 통하여 치료를 해 준다.

이곳 역시 특별교육을 받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없고 일반 암병동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1회씩 자원봉사자 중에 심리학자가 있어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일본

일본 호스피스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과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Hospice Care에 관심및 소개되면서 Hospice병동은 1980년부터 개설되고 다양한 활동을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에 20여개 시설이 있으며 그 유형은 병원내 분산 병동 및 독립, Home Hospice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쿠오카 구루메의 성마리아 병원은 1988년 C.M.C와 자매병원을 맺고 의료협력 기술교류로 Hospice 운영 및 교육 등 연수를 가졌다.

성마리아 병원은 1994년 Hospice team(의사, 간호사, 봉사자 수도자, 성직자)을 구성하여 내과병동에서 Hospice care을 시작하였고, 1996년도에 20병상 병동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과에서는 1994년 4. 10-16 일

주일간 간호사, 봉사자 6명이 성마리아 병원 견학과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그동안 본 병원 Hospice 연수를 다녀간 20명 일본간호사들과 좋은 만남의 자리도 가졌다.

